

▲ 학습방법 : 관찰·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환경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음. 관찰 및 조사를 안내하는 지침서에 따른 학습 활동.

또한 통합 교과 방식, 야외 실습, 단독 환경 과학 교과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발전시켰다.

십수년간 축적된 환경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원적, 학제적인 교육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가운데 하천 수질 감시 프로젝트는 세계 20여 개 국에서 받아들이고 있으며, GREEN이라는 교육 통신망으로 발전되었다. GREEN은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nd act locally)"는 세계 환경 보전 슬로건을 훌륭하게 홍보하고 있다.

독일의 환경교육

교내 환경교육은 정부지정에 의한 과목별 교육 과정과 교내 환경의 날을 지정 또는 환경 공모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며 실시된다. 학교별로 환경의 날을 정해 학교 주변의 교통량과 관계되는 소음, 이황산가스 측정, 밧대리 수질 등으로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사립, 국립 연구 재단 또는 시 기관에서 주최하는 환경 사진전, 환경 스티커 고안, 고장 환경 역사 등 현상 공모에 참여 시키기도 한다.

또한 견학과 수학여행을 통한 교외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견학장소로는 자연 보호 센터, 야외 실험장, 박물관, 동식물원 등이다. 견학 장소에는 환경교육 전문가가 학생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담당한다.

수업에서 다루었던 환경 주제의 30%는 학교 내외부 교육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한 교육장으로 학교 정원, 학교 숲, 학교 호수, 실험장 등 동식물 서식처와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자연 보호 센터, 야외실습장 등이 있으며, 환경 조사, 설문 조사 등도 교외 수업으로 실시된다.

환경교육은 지속적이고 실천을 통한 교육이어야 한다.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교육 그리고 대중 매체를 이용한 폭넓은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환경교육의 연구와 다양한 교재교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신이 환경에 의한 피해자라는 관점보다는 환경의 가해자

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환경 문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스티로폴 재활용 현장 견학」은 책자와 비디오 및 직접체험을 통해 재활용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환경교육으로서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 스티로폴 재활용 업체인 인천산업재생 을 방문, 재활용 과정을 견학 후 기념촬영한 서울 성동구 동명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 재활용을 위해 설치된 독일의 분리수거함